

‘시민 지킴이’ 안전보안관 120명 추가 위촉

지난해 9월 226명 이어
광주시민 위협 요소 근절
시민 안전캠페인 등 활동



17일 광주 서구 광주공연마루에서 120명의 시민이 안전보안관 소양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보안관증을 부여 받은 후 시민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120명이 추가로 위촉돼 조만간 활동에 들어간다고 광주시가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위촉된 171명 226명에 더해 120명이 새롭게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공연마루에서 안전보안관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및 신고방법 등 3시간의 소양교육을 이수하는 등 활동 준비를 마쳤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안전보안관증을 부여받으면 곧바로 시민 생활 속 위협 요소를 찾아 시정을 권고하고, 법규 위반 신고도 한다. 안전보안관은 이른바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힘을 쏟는다. 불법주정차, 비상구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행,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물놀이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모두 안전과 직결된 안전무시 관행이다. 함께 캠페인을 하거나 주거지 인근에서 개별 활동을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171 안전보안관 226명이 활동에 들어가 최근까지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비롯한 불법행위 3398건을 시정 권고하거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 캠페인도 78차례 벌였다. 김경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소양 교

육 받고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120명을 포함해 약 350명의 안전보안관이 시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하게 된다"며 "안전보안관들이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공로패 받아

상생카드·특례보증 등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공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이 시장은 취임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평가했다.

광주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광주상생카드 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빛고를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 골목상권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광주상생카드'는 12월 현재까지 770억원이 발행되는 호응을 얻고 있다. 별도의 가맹점 가입 절차가 없는 전국 최초 순수 카드형 지역 화폐라는 장점과 10% 특별할인 혜택에 따른 사용자들 입소문에 힘입어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 연말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광주상생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4월부터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로 이 시장은 지난 5일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19 목민상'을 수상하고, 12일에는 광주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올 한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애쓰신 소상공인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해군 '광주함' 장병 24명 초청 빛고를투어

5·18묘지 참배·문화전당 관람



518국민민주묘지 참배 마친 목포 해군 제3함대 소속 광주함 장병들.

해군 '광주함'에 복무중인 타지역 출신 장병 24명이 17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봤다.

광주시가 지역 군부대에 복무 중인 타지역 출신 장병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타지역 장병 빛고를투어'를 통해서다. 해군 제 3함대 소속 광주함은 목포 해군기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타지역 장병 빛고를투어'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다. 참여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광주와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광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4차례 행사에서 총

178명이 참가했다. 정민군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빛고를투어를 통해 광주시의 지명을 함명으로 사용하는 '광주함' 장병들이 광주의 역사

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광주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농기센터 시범사업 평가회
원예·축산·청년 우수사례 공유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6일 관내 농업인과 시범사업 대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원예·축산·청년분야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업현장에 첨단 융복합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원예·축산·청년분야 시범사업 12개를 20곳에서 추진했다. 이번 평가회는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올해 사업에서는 작목 및 시설유형에 적합한 패키지 기술을 도입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으로 보온을 통한 재배환경 개선은 물론 기존보다 40~50% 난방 에너지가 절감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또 청년농업인의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 사업에서는 기존 하우스에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팜과 에너지절감 난방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물 상품성이 20% 증가했다.

이날 평가회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센터 내 스마트팜 시범모델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혜경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미래농업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기술보급과 농촌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사업' 호응

광주시 북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사업'은 매출 하락 등 사업부진으로 업종 변경 등 돌파구를 찾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 간판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업종전환이나 업종추가를 고민하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권 및 고객 분석, 마케팅 방법, 사업아이템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새로운 업종의 매출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간판 제작을 지원했다.

북구 지원을 받아 한 업체는 도·소매업

(통신판매)에서 서비스업(댄스어로빅)으로 재창업했고, 일반음식업 2개 업체는 각각 분식과 한식을 추가했다. 도·소매업 1개 업체는 서비스업(스티세차), 서비스업 1개 업체는 도소매업(피부화장품 판매)을 추가하는 등 업종전환·추가를 완료했다.

특히 북구는 올해 실시한 소상공인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요구가 많았던 시설개선 분야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종합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독립운동 역사 현장에 사적지 표지석 설치 흥학관 터 등 5곳

광주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알리는 사적지 표지석이 설치됐다.

광주시는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잊혀져가는 광주독립운동 사적지를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흥학관 터 등 5곳에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독립운동 사적지 표지석이 설치된 곳

은 ▲흥학관 터(사회문화운동 중심지로 야학활동, 강연회, 신간회 광주지부·광주청년회 등 각종 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된 장소) ▲김기권 문방구점·장재성 뺨집(광주학생독립운동 거점지로 독서회 회원들의 비밀모임 장소) ▲옛 광주지방재판소 터(한말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재판받은 장소) ▲옛 광주감옥 터

(한말 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장소) ▲옛 송일학교 교사와 학생 등 100여 명이 3·1운동을 모의하고 준비한 장소)다.

광주시는 광주독립운동 사적지 표지석 설치에 앞서 관련 단체, 전문가, 교수 등 9명으로 '사적지 표지석 설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형호 기자 khh@

'북구 마을 공감 페스티벌'...마을만들기 성과 공유

광주시 북구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북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마을활동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북구 마을 공감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을사업을 추진했던 총 67개 마을공동체가 모두 참여해 소통과 화합 및 마을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상상북구마을미래학교 수료식을 시작으로 마을미래계획만들기, 주민자치회, 마을미래학교 등 주제별 8개 부스를 운영해 지난 1년간의 활동사례와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사업 전담코디, 마을활동가 등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느꼈던 감동이나 재미 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공감 콘서트와 마을사업에 관한 퀴즈풀기,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